

고영태 “崔씨가 K재단 기금 1000억으로 늘리라고 지시”

최순실 재판 증인 출석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측근이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6일 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의 비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폭로했다.
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최씨의 인사 농단 등에 대해 다양하게 진술했다.
◇“재단 기금 1000억원대로”=고 전 이사는 최씨가 K스포츠재단의 기금 규모를 1000억원대로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친구인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다.
검찰이 지난해 2월 18일자 회의록을 보여주며 ‘K스포츠재단 규모를 1000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최씨의 지시인지를 묻자 고씨는 “저 문건은 최씨의 지시에 따라 만들고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심리 마무리 직전에 발언을 신청해 “기업에 내가 1000억원을 애기했다는 건 너무 황당 무거운 애기”라며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애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노 부장의 증언을 반박한 바 있다.
◇미안마 대사 인선 의혹=고 전 이사는 ‘최씨와 함께 유재경 미안마 대사를 만난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증언에 따르면 최씨와 고씨, 당시 KEB

“지난해 8월 최씨와 함께 유재경 미안마 대사 만나”

“최씨 더블루K 실질 운영자…최씨 협박한 적 없다”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었던 고모씨, 인호섭 미안마 무역진흥국 서울사무소 관장과 함께 지난해 8월 미안마를 방문했다.
고씨는 “당시 최씨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인 관장과 함께 식당에 가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 맞다”고 묻자 고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고씨는 최씨가 미안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최씨가 지난해 4월께 자신의 건물에서 커피숍을 열고 싶어 인 관장을 소개받았고, 이후 커피 수입과 관련해 알아보던 중 미안마에서의 커피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씨는 최씨의 영향력으로 유 대사가 임명됐다는 의혹에 관해 “당시는 몰랐고 요즘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답했다.
◇집안일에 심부름까지=고 전 이사가 회사에 다닐 때 최씨의 집안 일이나 심부름, 고장난 차 수리 등 개인적인 업무까지 보좌했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최씨 의혹을 폭로한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현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을 최씨에게 직접 소개한 게 아니냐는 최씨 변호인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이 “향후이라도 자신이 필요하면 일을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두

사람을 추천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묻자 결국 최씨의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고쳐 온다든지 그런 일들과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뭐 좀 갖다줘야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전달해 주고 심부름도 할 겸…”이라며 “모든 직원이 다 똑같이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이날 법정에서 더블루K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최씨 측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최씨 변호인은 고씨에게 “일일이(회사 일에 관해 직원들의)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증인(고씨)이 더블루K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씨는 “최씨 지시로 보고를 받은 뒤 그 내용을 최씨에게 보고했다”고 맞받았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이 더블루K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스포츠 컨설팅 전문 기업을 차리고 싶다는 고씨 제안에 따라 자금을 지원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 전 이사는 “‘최순실 게이트’를 터트린다고 최씨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간 최씨가 “고씨 등이 게이트를 터트렸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협뉴스





법정서 만난 고영태·최순실 최순실씨와 그의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고영태 전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최순실씨가 이날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협뉴스

친문인사 최대한 줄이고…문재인 캠프 구성 박차

전윤철·김진표·이미경 등

공동선대위원장 ‘7+α’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캠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6일 “현재로서는 7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선대위원장급 인사가 합류할 경우 숫자는 더 늘어나면서 ‘7+α’가 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확장성과 포용성, 안정감을 중시해 잔용을 갖추기로 했다”며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검토 대상에 없다. 더 늘어나더라도 친문 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호남 출신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외부에서 합류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당내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이미경 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대표와 경쟁했던 송영길 의원 역시 총괄본부장으로 합류를 앞두고 있다.
캠프 전체 인력을 봐도 기존 친문 인사는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 전 대표 측의 설명이다.
나아가 문 전 대표 측 내부에서는 그동안 합류한 외부 인사들을 이번 주에 일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애초 이번 주로 예정했던 캠프발족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예비후보 등록을 먼저 하는 일이 있더라도 캠프 공식 출범은 촛불민심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측 인사는 “그동안 김부겸 의원 등 다른 주자들이 등록을 미루고 있어, 우리도 계속 기다려 왔다”며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토론회에 응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정책 행보와 전 국순화 일정을 소화하며 독주체제 굳히기에 힘을 쏟고 있다. 문 전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노랑진에 있는 한 고시학원을 방문,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주제로 한 특강을 했다.
7일에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안방인 충남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6-3-3’→‘5-5-2’ 파격 학제개편 제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결선투표 도입 개혁입법 촉구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권을 겨냥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실상 각 분야의 대선공약을 집대성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명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기존의 ‘6-3-3 학제’를 ‘5-5-2 학제’로 개혁하고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교육 개혁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정치·교육·과학기술·안보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집권 비전을 개괄적으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이날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 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제안은 현행 공교육 학제 개편으로 집약됐다.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이뤄진 현행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또 교육혁명과 함께 과학 기술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 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사회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가운데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는 자강안보(自強安保)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방 청렴법 제정과 국방·방산비리를 근절, 해·공군 전력 확대 및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조기 전력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